


4-2018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

Chanwoo Kim 김찬우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thm>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ity Commons](#), and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Recommended Citation**

김찬우,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 석사학위논문, 풀러신학교대학원, 2018.

This Thesis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Masters in Theology (ThM) in Intercultural Studies Theses / 선교 신학 석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Thesis Approval Sheet

This thesis entitled

**STRATEGIES FOR CONTEXTUALIZING YOUTH
EVANGELISM THROUGH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written by

Chanwoo Kim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Keon Sang An, PhD

Date April 2018

**STRATEGIES FOR CONTEXTUALIZING YOUTH EVANGELISM
THROUGH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

By

Chanwoo Kim

A Thesis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April 2018

ABSTRACT

Kim, Chanwoo

2018 “Strategies for Contextualizing Youth Evangelism through Receptor Oriented Communic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91 p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d apply a contextualization strategy essential for Korean church youth evangelism through missiological and biblical studies of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about communication.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what is a general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2) What is the missiological and biblical perspective of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3) What is the uniqu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of Korean youth? 4) What is the contextualization strategy for youth evangelism through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This research consists of six chapters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hapter 2 introduces the definition, elements, processes, and principles of communication abou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and chapter 3 examines the Christian understanding of communication by studying biblical and missiological foundations of communication and discuss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on this basis. Chapter 4 analyzes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Korean youth, and chapter 5 presents a strategy for youth evangelism for Korean youth. Chapter 6 concludes the study by summarizing the research and proposes some final thoughts.

On the basis of these research, the thesis of this study is uncovered that through the 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 the strategies of evangelism—which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Korean youth and their socio-cultural environment—play an essential role in gaining the hearts of Korean youth and inviting them into the gospel of Christ.

Mentor: Keon Sang An, Ph.D.

218 words

개요(ABSTRACT)

김찬우

2018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91 pp.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성경적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청소년 전도에 필수적인 상황화 전략을 제시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둘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셋째,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은 무엇인가? 넷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요소, 과정, 원리를 다루었고, 제3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학적 기초를 연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면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에 대하여 다루었다. 제4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다루었고, 제5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한국 청소년 전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이러한 연구 위에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한국 청소년들의 상황과 그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한 전도 전략이 한국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초청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Mentor: Keon Sang An, Ph.D.

151 words

헌정(DEDICATION)

사역과 논문을 위해 헌신으로 내조한 나의 사랑하는 아내 장주희와
항상 아빠를 최고라고 말해 준 나의 사랑하는 딸 김은서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또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김종안 집사님과 어머니 옥정희 권사님, 그리고 장인 장영엽 목사님과 장모 김경애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항상 위로와 격려로 용기를 주시며 부족한 논문의 방향과 지도를 담당해 주신 안건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 늘 격려해주시고 기도해주신 LA 온누리교회 이정엽 담임목사님, 평생지기요 형님으로서 늘 부족한 동생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목사님, 이 외에도 이름을 적지는 못했지만, 저희 가정과 함께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회의 여정에 언제나 기도와 헌신과 격려와 웃음으로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장주희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사랑스러운 딸 김은서에게 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
목차(TABLE OF CONTENTS).....	vii
표 목록(LIST OF TABLES)	x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x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논지(Thesis)	1
연구의 배경(Background)	1
연구의 목적(Purpose).....	3
연구의 목표(Goals)	3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s)	3
핵심 연구 문제(Central Research Issue)	4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4
연구의 한계(Delimitations)	5
연구의 방법론(Methodology)	5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6
제 2 장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	7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8
어원	9
정의	9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10
발신자와 수신자	10
경험의 장	11
기호화와 해석화	11
메시지	12
채널	12
잡음	13

피드백	13
상황	14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14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18
반복(Redundancy).....	18
피드백(Feed Back).....	18
적절한 정보량(Retroactive Inhabitation)	19
슬리퍼 효과(Sleeper Effect)	19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19
미디어 능력(Media Capabilities).....	20
요약	20
제 3 장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	22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	23
창조	24
삼위일체	24
하나님의 역사참여	25
성육신	25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	26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27
선교학적인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32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35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들	35
하나님의 전략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37
요약	41
제 4 장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	43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	44
한국 청소년들이 접하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44
한국 청소년들이 접하는 부모와의 관계.....	49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환경.....	53
또래 집단	54
이성 교제	57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	61
요약	64
제 5 장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전략.....	67
관계를 통한 전도	69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	70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계 전도.....	72
문화를 통한 전도	75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문화전도.....	76
CCM을 활용하는 문화전도.....	78
요약	80

제 6 장 결론	82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86
약력(VITA)	91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형제자매와 갈등을 느끼는 내용: 고등학생 집단	48
<표 2>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 정도	59

그림 목록(LIST OF FIGURES)

<그림 1> 샤논(SHANNON)-위버(WEAVER)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15
<그림 2> 슈람(SCHRAMM)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모형	16
<그림 3> 박기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형	17
<그림 4>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삼중 문화 모델	31

제 1 장 서론

본 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receptor-oriented communication)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에 대한 연구의 일반적 개관으로서 연구의 배경과 연구 목적, 연구 목표들과 연구의 중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얻은 핵심 연구 주제와 질문들은 본 논문의 한계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연구의 논지(Thesis)

본 연구의 논지는 청소년 사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며 청소년 전도에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들의 독특한 문화와 가치관을 잘 이해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는 상황화 전략이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본 연구자는 학부 때부터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풀러 신학교로 유학을 오기 전까지 9년이라는 사역의 시간 동안 약 6년의 세월을 청소년 사역자로 살아왔다. 그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나름대로 청소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모습들을 경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하지만 경이로운 교회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교회가 지금은 반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고 볼 수 있는 14~19세 청소년들의 감소가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기인한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중이병에 시달리는 그 시기의 청소년들을 다루기가 가장 힘들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남한의 중2들이 무서워서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교회의 사역현장 속에서도 교사들이 모든 교육부서를 통틀어 청소년 부서를 가장 꺼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회의 구조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사역의 전문화를 위해서 청소년 사역자를 청빙할 때 풀타임 사역자를 청빙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회들이 사역자가 2~3년 안에 바뀌어버리는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한다. 이러한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 사역이 점점 곤경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청소년 사역을 해오면서 위에서 언급한 사회·문화적이고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들로부터 오는 요인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차피 사회·문화적인 문제나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사역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2~3년의 짧은 시간 안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고 청소년부서의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그 전략에서 청소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공을 들였던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설교를 할 때도 심방과 전도를 할 때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이 없이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렇듯이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연령대를 포함하여 사역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청소년 부서의 성장을 위해서 모든 사역의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되어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전도사역이 없이는 어떤 교회와 교육부서도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청소년의 숫자보다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더 많음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 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무조건 학교 앞에 찾아가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청소년들을

불잡고 전도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청소년 전도사역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이 다른 선교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이런 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 전도사역에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에 상황화 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 논문에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을 연구하여 많은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전도 사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임을 인식하고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황화 전략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효과적인 복음 전달로 인해 청소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을 계획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적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탐구하고, 한국 청소년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상황화된 전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황화된 전도 전략 수립을 통하여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전도와 사역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s)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자는 청소년 전도사역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전도와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의 관계를 상황화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상황화를 이해하고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 전도사역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객관적인 근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청소년 전도사역에 원리로 삼고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역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교회와 특별히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상황화적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성경적 근거를 제안하고, 이해를 높임으로써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을 제시해 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고립된 한국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적용한 전도사역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선교학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명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당면한 중요한 선교적 과제일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통해 청소년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세계관들 속에서 상황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 중요성을 가지며 모든 교회의 청소년 전도 사역에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적용하여 청소년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청소년 부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핵심 연구 문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연구의 핵심주제는 한국 교회의 효과적인 청소년 전도를 위해 그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갖는 중요성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1.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2.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성경적 관점은 무엇인가?

3.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은 무엇인가?
4.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은 무엇인가?

연구의 한계(Delimitations)

본 연구의 한계는 첫째,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로만 제한한다.

둘째, 상황(Context)은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가족과 학교와 친구 관계 및 중독에 대한 연구로 한정한다.

셋째, 연구대상의 한계를 청소년(14~19세)중에서도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한 지역 교회 청소년들로 한정한다.

연구의 방법론(Methodology)

본 연구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와 함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성경적 기초와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한국 청소년 전도전략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귀납법적 방법이 전반적인 방법론이 되며 이를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search)와 질적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이 사용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연구(Literature Research)와 질적 방법론(Qualitative Research)이 사용될 것인데,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를 위한 문헌연구 중 이론적 연구(Theoretical Study)방법과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선교학적 기초를 위해 선교학적/성서적 연구(Missological/Biblical Study)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문헌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은 주로 Fuller Theological Seminary Library에서 논문과 번역 서적, 한글 서적, 영문서적을 주로 이용할 것이며 한국의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학술 논문 및 학위 논문을 참조할 것이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지닌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 전도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질적 방법론 중 사례연구(Case Study)와 인터뷰(Interviews)를 통한 내용분석방법(Content Analysis)이 사용될 것이다.

연구의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논지,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목표, 연구의 중요성, 핵심연구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한계, 연구의 정의, 연구의 가정, 연구의 방법론, 연구의 개관을 통해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서술한다. 제2장은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요소, 과정, 원리를 이해한다. 제3장은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로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이고 선교학적인 기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한다. 제4장은 한국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별히 본 연구자가 몸담았던 분당의 한 교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한다. 제5장은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전략을 제시하고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요약하고 제언함으로써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제 2 장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

이번 장에서는 청소년 전도사역에서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요소, 과정, 원리 이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살아가며 모든 삶의 부분이 커뮤니케이션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즉, 단 하루도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자 할 때는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고 정의도 그만큼 다양하며 오늘날 연구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이론이 개인 간의 정보교환을 다루는 대인 커뮤니케이션부터 집단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국제간의 정치, 문화, 상업적인 관계들을 다루는 국제 커뮤니케이션, 대중매체를 사용하는 매스컴 커뮤니케이션 등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하는 분야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이다(이종우 2005:33).

그러므로 본 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관하여 고찰해 나갈 때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고려해 상호 간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범주를 좁혀서 다룰 것이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본 연구자가 다루려고 하는 청소년 전도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어떠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있다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견을 수신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를 작성하여 정확한 발음과 또렷한 목소리로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고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정보나 지식의 정확한 전달에 있게 된다. 반면에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기 식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발신자의 의도가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에 목적을 둘 수밖에 없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서서 발신자의 입에서 나와서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김숙현 외 2001:35).

그러므로 본 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을 고찰해 가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겠지만, 더욱더 범위를 좁혀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어떠한 정보나 지식의 단순 전달이 아니라 후자에서 언급한대로 발신자의 입에서 나온 정보나 지식을 수신자도 같은 의미로 수신하는 모든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주제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 내용이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앞서 말했듯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원을 살펴보고 그 후에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원

먼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커먼 ‘common’과 동일한 라틴어 어원과 일치하는데 이 단어의 동사형 ‘commnicare’는 ‘공통적인 것을 만들다(to make common)’라는 의미이다. 명사형 ‘commnis’는 ‘cum’과 ‘munis’라는 2개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cum’이라는 어근의 의미가 영어의 ‘with’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의견을 함께하지만 ‘munis’의 경우에는 주로 2가지 해석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는 ‘moinis’ 즉, 묶다(bound)라는 해석이며 둘째는 ‘oinos’ 즉, 하나(one)에서 온 것이라는 해석이다(전기정, 황현택 1997:119).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공동’ 또는 ‘공통’, ‘공유한다’,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mmnicare’, ‘commnis’에서 유래되었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들과 지식이나 정보, 신념이나 감정 등을 공유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차배근 1978:18).

정의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연구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뉴컴(Newcome)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의 전달이라고 보았으며 슈람(Wilbur Schramm)은 커뮤니케이션을 두 인격체 사이에서 공통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행위 또는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1978:5-19).

모어(William F. More)는 커뮤니케이션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에서, 그리고 환경과 환경 사이에서 공통으로 이해된 관계를 수단으로 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최창섭 1978:31).

또한 모어의 정의에서 ‘공동의 이해’라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함께 이해한다는 공통분모가 없이는 커뮤니케이션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이종우 2005:35). 마지막으로 이종우는 커뮤니케이션이란 한 사람이 어떤 의미나 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전달할 때 양 인격체들 간의 공통적인 상징 매체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이상의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발신자에게서 수신자에게로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정보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가 원하는 메시지의 의도가 수신자에게 공통으로 이해되어 공감되고 반응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쌍방향의 소통 과정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요소

커뮤니케이션의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듯이 커뮤니케이션에 개입되는 요소도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그 요소의 중요성은 커뮤니케이션의 초점과 목적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고 그 과정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볼 것이다.

발신자와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따라서 송신자와 수신자 또는 화자와 청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자는 송신자, 화자라는 말 대신 발신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커뮤니케이션을 행하는 두 인격체를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여기서 발신자란 두 인격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행할 때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며 수신자란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발신자라는 칭호를 붙였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수신자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선행적이고 일방적이며 순서적이라기 보다는 두 인격체 사이에서 동시적이고 쌍방향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두 인격체가 동시에 발신자가 되기도 하고 수신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한다(박기순 1998:20).

경험의 장

경험의 장이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두 사람 즉, 발신자와 수신자가 과거에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의 종류나 크기, 정도나 특성 등 경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뜻한다. 이것은 뒤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슈람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모형이 이러한 경험의 공유를 두 사람의 경험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으로 묘사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정도만큼 커뮤니케이션은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많은 대인관계에서 때때로 경험을 공유할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박기순 1998:21).

기호화와 해석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메시지를 생산하는 행위를 기호화(encoding)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이해하는 행동을 해석화(decoding)라고 말한다. 즉, 기호화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하는 것과 단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속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석화는 기호화에 대한 반대 과정으로

발신자가 기호화를 통해 보낸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도달되어서 자신의 의미와 체계, 가치관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다(최창섭 1978:38-39).

기호화와 해석화 또한 이미 앞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발신자인 동시에 수신자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쌍방향적인 특성상 우리 자신이 메시지를 기호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도 있다(박기순 1998:23).

메시지

두 인격체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반드시 주고받아야 한다. 메시지는 발신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정보에 대해서 기호화하기 전의 내용이며 수신자가 받은 그 정보를 해석한 후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기호화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전달 가능 형태로 바뀌게 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형태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형태는 신호일 수도 있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코드일 수도 있다(박기순 1998:23-24).

메시지 또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발신자가 전달하는 정보나 지식에 불과했지만,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발신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발신자와 수신자가 함께 읽어내는 것이다.

채널

채널이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수단이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채널은 빛의 파장과 소리의 파장 등을 들 수 있다. 발신자의 발성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소리가 만들어 내는 음파나 음압, 이 음압이나 음파를 옮겨가는 공기, 그리고 수신자의 귀와 청각신경기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메시지를 나르는 채널 기능을 한다. 이 밖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과 관련된 채널들도 있다(박기순 1998:24).

또한, 커뮤니케이션 용어 가운데 미디어라는 요소를 학자들에 따라서 채널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고 구별하여 사용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매체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나 지식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전환해 주는 물리적, 기술적 수단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널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잡음

잡음은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에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메시지의 송수신을 방해하거나 간섭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잡음 때문에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발신자와 수신자 간에 의미도 공유할 수 없게 되며 이것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잡음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물리적 잡음, 심리적 잡음, 의미적 잡음이 존재한다.

물리적 잡음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할 때 눈과 귀에 거슬리는 모든 소리나 화면 같은 기계적 잡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심리적 잡음은 메시지의 기호화나 해석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방해나 간섭으로 예를 들면 서로 간의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의미한다.

의미적 잡음은 발신자가 자기 생각을 기호화하여 수신자에게 보냈는데 발신자의 그 의미가 수신자에게 해석되는 과정에서 발신자의 의도 그대로 추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잡음이다. 이러한 잡음은 보통 서로 간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한다.

잡음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잡음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박기순 1998:25-26).

피드백

피드백은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수신자의 반응이 발신자에게 다시 전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발신자는 보통 수신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메시지의 내용이나 구성 그리고 전달방법이나 채널 등을 바꾸고 조절한다. 또한, 이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발신자는 자신이 전달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수신자가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피드백은 발신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을 수신자의 반응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박기순 1998: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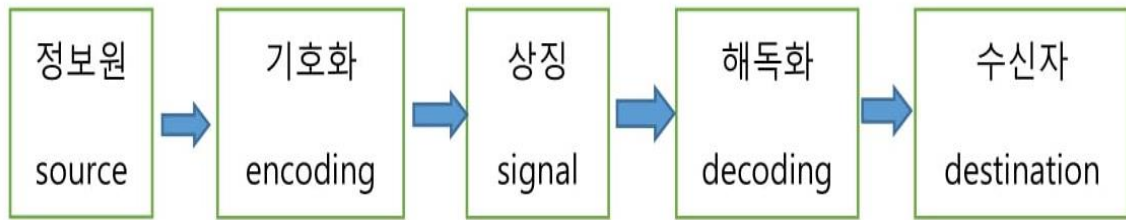
상황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은 진공(vacuum) 속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상황(context) 속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박기순 1998:37).

상황이란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 환경은 시간, 공간, 심리상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며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받는다(1998:27-28). 즉 메시지가 메시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은 발신자가 메시지를 구성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여 메시지의 내용을 만들고 수신자가 해석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왜냐하면, 상황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시지가 획일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함축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황은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

지금까지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 관하여 매우 중요하고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에 어떤 상호작용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는지 그 과정을 몇 가지 모델을 들어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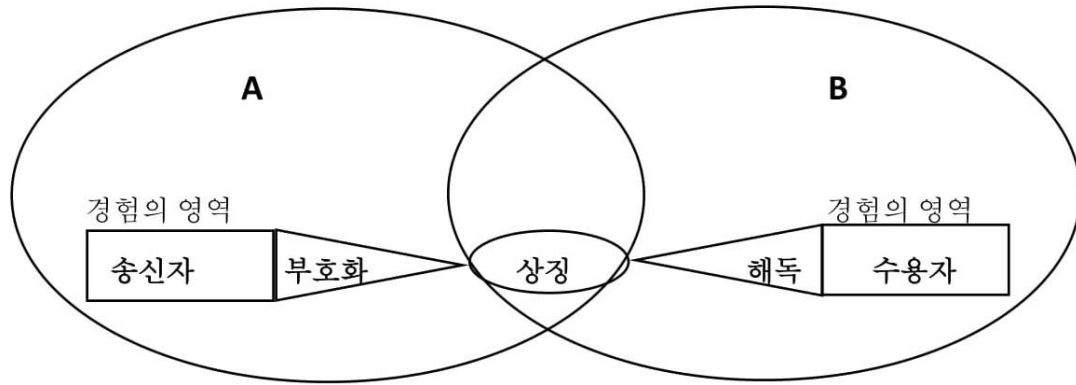


<그림 1>

샤논(SHANNON)-위버(WEAVER)의 커뮤니케이션 모형
(Abbey 1973:28)

이 도식은 샤논(Claude E. Shannon)과 위버(Warrom Weaver)의 커뮤니케이션 모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메시지가 발신자(정보원)로부터 수신자에게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정보원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행위의 주체이며 기호화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상대방에게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기호로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은 수신자가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터득할 수 있는 언어, 동작, 상징, 표현 등을 말하며 해독화는 기호로 받은 메시지를 수신자가 풀어서 그 의미를 터득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자는 발신자가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고 목표한 대상이다(Abbey 1973:2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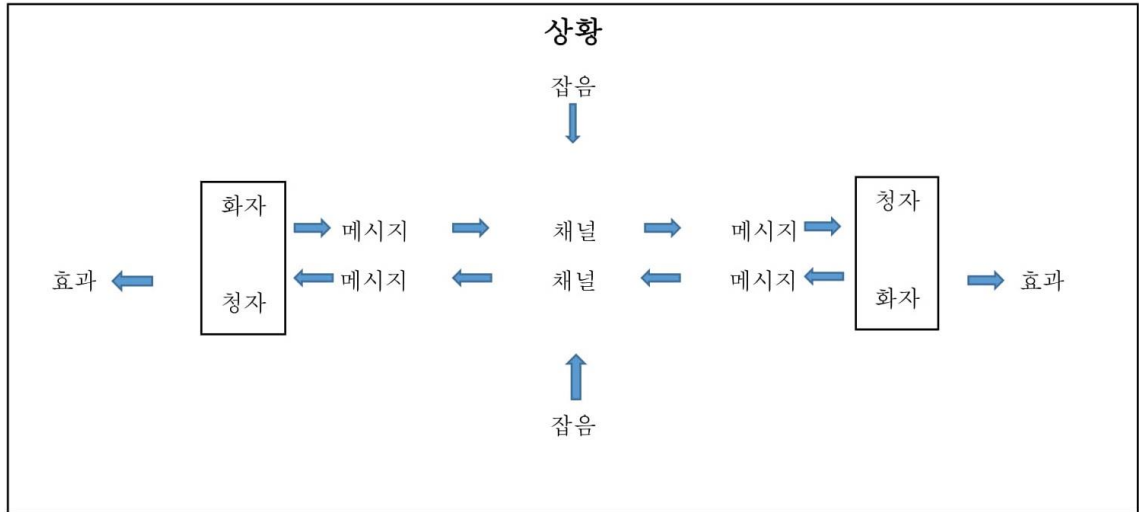
즉, 발신자가 자신이 전달하려는 정보나 지식을 기호화를 통해서 메시지로 작성하며 작성된 메시지를 신호로 바꾸어 채널을 통해 전달하며 이렇게 전달된 메시지가 수신자에 의해 이해되는 과정이다.



<그림 2>

슈람(SCHRAMM)의 대인커뮤니케이션 모형
(Schramm 1954:15)

이 도식에서 슈람은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상징이나 기호를 매개로 서로 공통된 의미 즉, 경험의 영역을 공유해 나가는 과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고 있다. 슈람의 모델에서 각각의 원은 두 사람의 경험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며 두 원이 겹쳐진 부분은 공통된 경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경험영역이 겹치는 영역이 크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이종우 2005:57; Schramm 1954:15에서 재인용).



<그림 3>

박기순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모형
(박기순 1998:45)

이 도식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두 사람이다. 이 모형에서 화자와 청자라는 단어를 둘러싼 네모꼴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똑같은 네모꼴을 두 개로 표시한 이유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채널에는 잡음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발신자가 의도한 채널 왼쪽의 메시지가 수신자가 수신한 채널 오른쪽의 메시지와 같지 않을 수 있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하므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의도한 메시지와 수신한 메시지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피드백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메시지의 흐름 자체가 사실상 피드백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모형의 양쪽 끝에 있는 효과는 상호작용적이거나 상호거래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교환결과로 두 사람 모두에게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형의 모든 구성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네모꼴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박기순 1998:45-46).

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사회 현상들에도 일정한 질서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커뮤니케이션에도 그 과정에는 일정한 질서나 원리와 같은 법칙들이 있다. 이러한 법칙과 원리 중에는 문화권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고, 또한 문화에 따라 적용되는 특수한 법칙과 원리들이 있다(나은영 2015:42). 그러나 여기서는 사회 과학자들이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원리들을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반복(Redundancy)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할 때 반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복은 발신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의 의도와 핵심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론 반복을 너무 강조함으로써 수반되는 시간 낭비나 지루함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발신자는 충분한 반복을 하면서도 새로운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서 둘 사이의 균형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유일상 1988 :43).

피드백(Feed Back)

피드백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후 수신자로부터 다시 발신자에게로 돌아오는 반응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피드백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이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이며 순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방적이고 직설적인 체계를 탈피하여 연속적이고 순환적이며 상호작용적인 피드백의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유일상 1988 :44).

적절한 정보량(Retroactive Inhibition)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에 많은 양의 내용을 말하게 될 때 정보 전체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도 떨어지거니와 발신자의 의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메시지는 간단할수록 효과적일 수 있다(유일상 1988 :45).

슬리퍼 효과(Sleeper Effect)

슬리퍼 효과란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처음에는 발신자에 대한 공신력이나 내용에 신빙성을 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메시지의 내용만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커뮤니케이션의 현상에서 수신자는 그가 신뢰하는 발신자의 내용을 쉽게 수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장기적 시간성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홈쇼핑에서 제품 광고를 할 때 상품안내자가 ‘멋지다’, ‘실속있다’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것은 이러한 단어들이 결국 제품에 대한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시간이 흐르면 발신자에 대한 공신력과는 무관하게 발신자를 망각하고 결국은 말해진 내용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유일상 1988 :46).

선택적 인지(Selective Perception)

선택적 인지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발신자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나 내용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될 때 수신자는 그것을 자신의 인지 패턴으로 조직화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과 사고의 틀 속에 맞추어 인식하고 지각하게 된다. 즉, 인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지만 결국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고 조직하며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다(유일상 1988 :47).

미디어 능력(Media Capabilities)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각각의 미디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에 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매체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미디어를
결합하여 사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유일상
1988 :47).

요약

지금까지 제2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원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했던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공동’ 이나 ‘공통’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이것을 기초로 몇몇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그들 모두가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면서
‘공동의 이해’라는 것이 절대로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방적인 정보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가 의도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도 공통으로 이해되어 공감하고 반응하는 쌍방향의 소통 과정이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커뮤니케이션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입되는 요소도 다양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요소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경험의 장을 통해서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생기면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하며 이 메시지는
메시지를 생산하는 기호화와 메시지를 이해해서 행동하는 해석화의 과정을 통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게 될 때 발성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이 소리가 수신자의 귀와
청각신경기관에 전달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채널이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메시지가

쌍방향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둘 사이에서 전달되는 수단인 채널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를 방해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이며 의미적인 잡음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 채널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적절한 피드백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상황이라고 한다.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상황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메시지가 획일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함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종합하여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몇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모형을 모델로 들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6가지 원리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충분한 반복을 통해서 수신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리한 반복이 자칫 메시지의 의도를 왜곡하고 지루할 수 있으므로 발신자는 반복과 새로운 메시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정보량이 필요하며 수신자는 선택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수신자를 잘 파악하고 매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3 장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

지금까지 2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요소, 과정, 원리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제 3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학적 기초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찰스 크래프트(Charles Kraft)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자는 앞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로 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면서 오늘날의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일방적인 정보나 지식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신자가 원하는 의도대로 수신자에게도 공통으로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반응까지도 끌어내는 쌍방향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런 쌍방향적인 과정은 사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의 의도를 이해시키려고 하시고 그 이해를 통해 반응을 끌어내시는 사건이 구원과 성화라고 한다면 커뮤니케이션은 기독교에서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뜻을 많은 사람에게 계시로 나타내신다. 물론, 이 계시는 일방적인 개념이 강하지만 계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볼 때 이것은 분명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나타난다(이종우 2005:66).

즉, 기독교에서 구원은 분명히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인간들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고 삶이 변하는 것은 분명히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향적인 것으로 구원과 성화의 과정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한 본체에 삼위가 따로 존재하는 기독교의 독특한 삼위일체 교리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기초가 되며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관계 속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의미한다(Kraft 2001:15).

이렇게 볼 때 크래프트가 그의 저서 *Communicating the Gospel in God's Way* 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전달할 메시지를 위해서만 성경을 보아왔지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위해서는 성경을 보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성경이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에까지 다 적용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계시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님의 모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커뮤니케이터이시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셨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과정에 인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결국, 커뮤니케이션과 기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과 분의 관계가 된 것이다(2001:5).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번 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서 특별히 크래프트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발신자였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었다. 그 시작의 사건이 바로 창조였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잘 양육되고 성숙해지도록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다가오시며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지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참여하시는데 이 역사 참여의 절정이 바로 성육신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참여와 그 절정의 모델인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창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즉, 창조라는 것 자체가 바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창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커뮤니케이터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사역의 마지막 활동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다(Kraft 2001:35-36).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한 본체에 삼위가 따로 존재한다는 기독교의 독특하고도 신비한 교리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기초로서 한 본체에 삼위가 따로 계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신성의 복수성에 대하여 삼위의 위격들 사이에서 친밀하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크게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실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나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성의 위격들 사이에 있는 나-너의 관계를 통해서 위격들 사이에서 친밀하고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는 요한복음 3장 35절의 말씀과 1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신성의 위격들 사이에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셋째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과 1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신성의 위격들 사이에 있는 관계가 성자가 성부께 기도한 모습의 성경적 증거를 통해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절대적 의존의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로써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본질상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Webber 1985:63-66).

하나님의 역사참여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행위이며 신학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역사참여는 구원사적 의미를 지는 하나님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나눈 대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고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되며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단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Kraft 2001:16).

성육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인간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그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고 단절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참여 절정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성육신 사건이다.

크라프트가 발견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들중 하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성육신은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시기 위해 자신이 메시지 자체가 되신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잘 나타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결국, 성육신은 인간이 사는 곳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하여 최종적인 통로가 되었다(1991:21).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사건이며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원형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

모든 기독교인에게 공통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선교일 것이다. 교회사를 통해 살펴볼 때 역사적으로 이름이 알려졌든 혹은 교회사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누군가의 순교와 헌신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빛진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계속해서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것이 선교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선교할 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사역에서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전달하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기독교 선교를 하나의 놀이로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은 그 놀이의 이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문화와 그 외 다른 모든 장벽을 넘어가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Hesselgrave 1999:15).

그러므로 선교에서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를 이해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선교 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의 관계를 연구하고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본질상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남을 연구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

선교사가 타 문화권을 향하여 복음을 바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장 전념해야 할 것은 커뮤니케이션일 것이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겠지만 선교사가 전한 복음이 현지인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다면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교사들과 타 문화권의 현지인들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일까? 본 연구자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문화라는 단어는 매우 함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정의들이 내려져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학적인 정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를 습득하고 훈련하는 것은 현지인들의 문화적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타 문화권에 효과적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아무리 현지 언어를 잘 구사하고 언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타 문화권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이 절대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단어가 언어적인 개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거기에는 언어적인 개념을 넘어선 선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현지인들의 문화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성경이 말해주는 문화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 사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을 전할 때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선교사 자신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적 차이

앞서 언급했던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에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사람들이 혼하게 범하는 오류는 너와 내 생각이 다를 때 그것을 틀린 것으로 바라보는 즉, 사소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문화를 보게 되면서 타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많은 오해와 함께 성급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선교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그의 저서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원인에 대해 인식적 차원, 감정적 차원 그리고 평가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인식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타 문화권에 대한 오해들이다. 이 오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으로 왔다고 생각하는 유혹에서 벗어나 타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감정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장애물은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자문화 중심주의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대할 때 가지게 되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자신의 문화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문화에 대해서는 덜 문명화되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이러한 자문화 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와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그 문화의 학습자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차원에서는 미숙한 판단, 즉 성급한 판단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타 문화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해하기도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의 문화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미숙한 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기초가 자신의 문화가 아닌 성서적 기준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물론 타 문화권을 성서적 기준의 기초를 가지고 판단할 때에도 반드시 타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의 자세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Hiebert 1996:130-143).

결국, 히버트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원인을 인식적, 감정적 그리고 평가적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타 문화권에 대해서 배우려는 자세, 즉 타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부자적(Emic) 관점과 외부자적(Etic) 관점을 통한 타문화 이해

문화 인류학자들은 타문화를 배우고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의 관점이 있음을 소개한다. 그것은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이다. 내부자적 관점은 쉽게 말해서 현지인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문화를 배워나갈 때 내부에서 자신의 문화를 보고 배우게 된다. 그렇게 그 문화권 안에서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물의 본체를 보게 될 때 자신이 배우고 성장한 그 문화가 기준이 되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식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어떤 한 문화에 매이지 않은 외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외부자적 관점이라고 한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내부자적인 관점으로만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부자적 관점은 서로 자신의 관점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식으로 이해하여 타문화를 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인류학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비교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외부자적 관점의 모델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왜냐하면,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와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적 관점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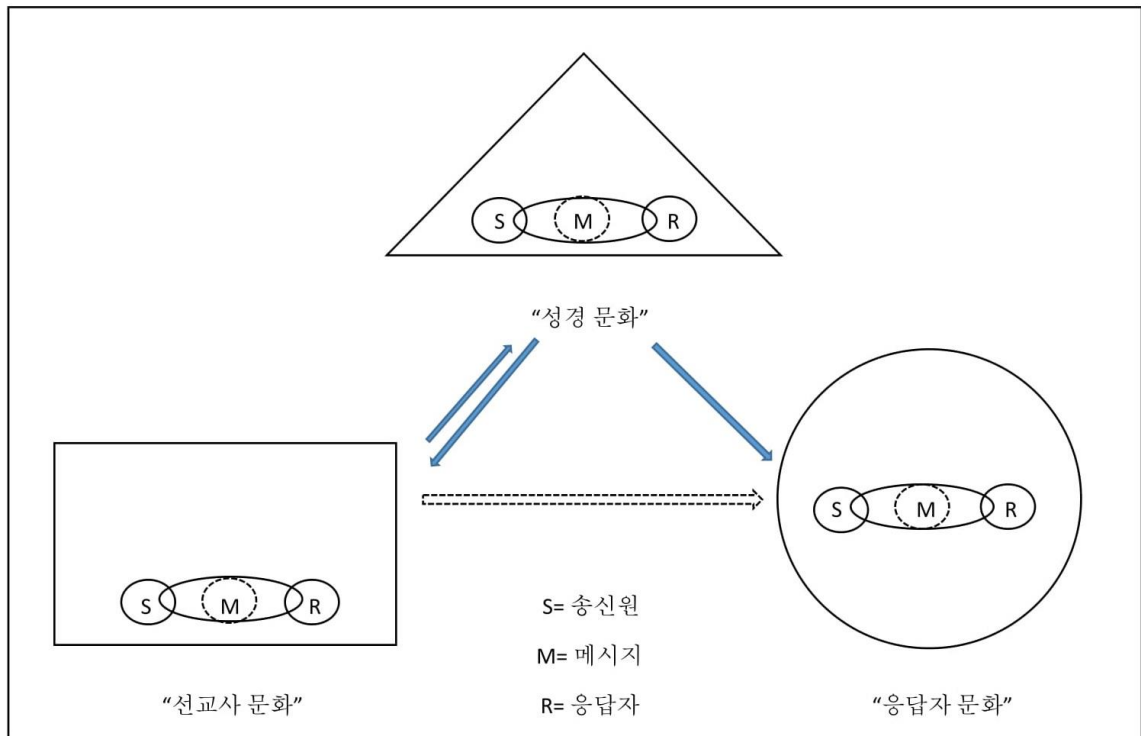
그러므로 타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화의 내부자적인 관점과 외부자적인 관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내부자적인 관점은 그 문화 안에 속해 있는 내부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며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점이다. 그리고 외부자적인 관점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타문화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것이다.

선교사로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대로 번역하기 위해서 선교사 자신은 현지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내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사는 여전히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복음을 외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다를지라도 복음의 본질과 내용은 잃어버리지 않고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Hiebert 1996:132-136).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삼중 문화 모델

앞에서 본 연구자는 타 문화권에 효과적인 복음 전달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함을 언급했었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선교사 자신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며 셋째는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는 그의 저서에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삼중 문화 모델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 모델은 헤셀그레이브가 유진 니다(Eugene A. Nida)의 저서 *God's Word in Man's Language* 에서 그가 제시한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삼중 언어 모델’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Hesselgrave 1999:110).



<그림 4>

선교 커뮤니케이션의 삼중 문화 모델 (Hesselgrave 1999:111)

그림 4를 보면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성경의 문화’이다. 이 성경의 문화란 성경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던 그 시대의 모든 문화적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에스라가 메시지를 전할 때 에스라가 마주한 문화는 유다였다. 그리고 사도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이 마주한 문화는 아테네였다. 예수님 역시 메시지를 전할 때 마주한 문화는 예루살렘이었다. 즉, 이러한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발신자(송신원)와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수신자(응답자)들이 존재했고 이때 발신자(송신원)는 성경의 문화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문화의 구성원인 수신자들에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메시지들을 전달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현재의 선교사들은 성경의 문화와는 다른 자신이 살고 있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이다. 선교사도 자신이 살고 있던 문화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고 그 메시지는 아마도 같은 문화 속에 있던 발신자에 의해 전달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림 4에서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선교사 문화’이다.

선교사는 이제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또 다른 문화에 속해있는 자체의 발신자와 메시지와 수신자들이 있는 집단에 파송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림 4에서 원으로 그려진 ‘응답자 문화’ 즉 현지인의 문화인 수신자 문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현지인의 문화에 접하게 되었을 때 선교사는 두 가지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첫째로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문화에 직접 관련이 있어 그들만이 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위임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헤셀그레이브의 삼중 문화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성령과 그 인간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함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의 문화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 후에 현지인들이 사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성향과 기준이 침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때 선교사는 현지인들에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Hesselgrave 1999:111-112).

선교학적인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헨드릭 크래머(Hendrik Kreamer)의 저서 *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에서 그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현대의 교회들이 다양한 도전과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선교 사역을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하고 더 깊이 있게 세우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헤셀그레이브는 우리가 가진 선교의 사명을 가장 간략하고도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한다. 그는 더 넓은 차원에서 선교적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성경적 원리나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그것에 대한 마음의 문제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 모르는 민족들에게 내가 아는 방식대로 잘난 척하면서 복음을 주입하는 단순한 원리나 설명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세계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양한 문화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배워야 할 선교적 과제인 것이다(Hesselgrave 1999:28).

앞에서 말했듯이 타 문화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선교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논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선교사의 책임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선교사는 단순히 대상 문화 속에서 복음대로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가(소위 “존재 전도”)?: 아니면 그 복을 앞을 향해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나아가 하는 것이 그의 책임인가(“선포 전도”)?: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반응하든지, 대적하든지에 대한 결단을 내리도록 응답자들을 향해 나아가서 강권해야 하는가(“설득 전도”)?: (Hesselgrave 1999:80)

즉, 헤셀그레이브는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선교사의 책임인지, 아니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설득하는 것까지가 선교사의 책임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선교사가 단순히 그 복음의 내용을 말과 글로 전달하고 가르치는 식이 아니라 기독교 메시지를 행동과 삶으로 실천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돌이키기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까지가 선교사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결국, 헤셀그레이브는 선교사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책임의 문제에 대한 논란은 위의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가지는 목표와 관심은 복음 그 한 가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헤셀그레이브는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설득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언급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6장 28절과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오는 ‘권하여’ 또는 ‘권면하여’라는 단어를 ‘설득하려 애를 쓰다’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그 단어 자체가 담아내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설득이란 최종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사역을 떠나서는 그 어떤 영의 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다(1999:85).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에 직접 참여하셔서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시며 인간들을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의의 자리에 앉히시려는 끊임없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의 절정이 성육신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사도바울에게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이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설득하는데 헌신했다. 그리고 그 설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현지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입장에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속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권하여 같은 사역을 수행하도록 했다(1999:85-86).

이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가 되는 것이며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역의 핵심이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 커뮤니케이션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란 선교사들이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현지인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본질상 수신자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찰스 크래프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로서 그는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전달된 메시지의 의도와 의미들이 수신자에게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동일하게 전달돼서 수신자가 발신자의 의도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Kraft 2006:258).

크래프트는 이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기 위해 의사전달의 기본적인 입장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발신자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고 둘째는 전하는 메시지 내용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이며 셋째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수신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한다(Kraft 1979:6-7).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목표들

앞서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에 관한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창조 활동을 통하여 태초부터 커뮤니케이션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창조 활동의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활동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당신의 목표들을 가지고 계셨다(Kraft 2001:36).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어떻게든 타락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셨다. 급기야 그 열심의 절정은 타락으로 인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에게 교량이 되어주시고 직접 그 교량을 건너서 인간들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지고 듣고 보고 거절당하기도 하는 분이 되셨다(Kraft 2001:37).

관계 응답

타락한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커뮤니케이션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그에 적절한 응답을 끌어내시기 위해 인간에게 다가오셨다.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어디에 있냐고 물으신 것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시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과 깨진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응답을 끌어내기 위함이었던 것이다(Kraft 2001:36).

이해

크래프트는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인간의 반응, 즉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회복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장애물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메시지가 어떻게 유한하고 죄인인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세 번째 목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화 그리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인간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인간들에게 얼마나 이해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며 간절한 열망이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전략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Kraft 2001:41).

하나님의 전략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본 연구자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이 목표를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찰스 크래프트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계시가 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이해할 수는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서 제4 문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그 속성은 소요리문답 제4 문답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신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는 것이다(Williamson 2006:21).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쉽고 간단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자는 주저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다. 조직신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의 절정은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키시기

위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희생이라고 할지라도 수신자들인 우리 인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었다.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볼 때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수신자들을 향한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이 나고 자라고 배운 문화의 틀 안에서만 모든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발신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수신자들이 자신들의 문화 언어와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신자들을 향한 배려이며 이것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메시지를 계시하실 때 인간의 준거 기준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준거 기준이란 인간에게 익숙한 환경, 인간의 생활방식, 인간의 언어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나타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하나님 자신의 준거 기준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인간은 그 언어와 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언어와 문화에 의해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준거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인간의 준거 기준을 사용해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는 수신자들인 인간의 준거 기준을 선택해서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셨고 또 그 언어와 문화에

상처를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Kraft 2001:42-45).

충격적 전달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발신자가 자신이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정확하고 옳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그러나 발신자가 그러한 관심만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 전달되었는가에 관한 마지막 판단을 수신자가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발신자는 수신자 지향적이어야 한다.

메시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발신자의 메시지가 수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그 메시지는 적절한 영향력과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그 메시지의 영향력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 마지막 판단을 내리는 것은 수신자이기 때문이다(Kraft 2006:260-261).

그러므로 수신자 지향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충격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수신자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원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충격적 전달을 위한 첫째 원리는 수신자들과의 신뢰성을 발전시켜 나가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신으로서 찬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자리에 오셔서 인간들과의 신뢰성을 수립하셨다. 그것은 스스로 인간이 되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감정과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느끼시고 공감하시면서 하늘에서 인간들에게 독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하심으로 인간들의 신뢰를 얻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

둘째 원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직접 증명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전문가처럼 행동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메시지가 되셔서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셋째 원리는 첫째 원리와 둘째 원리의 연장 선상에서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욕구와 관련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상 앞에 일반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언제나 예수님은 인간들의 절실한 요구를 출발점으로 시작하셨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수록한 어떤 교과서와 같은 메시지가 아니라 특정한 상황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특정한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이었다.

넷째 원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수신자들이 그 메시지의 의도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단순히 설명해주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답을 쉽게 주셔서 인간들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리는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인간들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응답과 반응을 기대하시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신자가 자신의 메시지가 옳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최종적으로 수신자가 마지막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커뮤니케이션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수신자들에게 달려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수신자들이 올바른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간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인간의 준거 기준으로 들어오시면서 인간을 향한 신뢰와 의존 심지어 상처까지도 받아가시며 인간들이 오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과 존중을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다(Kraft 2001:48-57).

요약

지금까지 제3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학적 기초를 연구하고 이것을 토대로 찰스 크래프트의 이론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았다.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창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참여, 성육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수립해 놓으셨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의 신비한 교리를 통하여 인간의 삶에 자세하고도 깊숙이 침투하셔서 계속해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나타내셨다. 비록,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직접 참여하셔서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절정의 모델로 성육신을 보여주셨다.

둘째로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를 다루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누군가의 선교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선교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교란 기본적으로 타 문화권을 향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를 다루는데 있어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역할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통일된 관점을 말해준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커뮤니케이션이란 타 문화권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때 수신자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았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찰스 크래프트의 커뮤니케이션 모델로 쉽게 말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메시지의 초점이 수신자에게 맞춰져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창조한 인간과의 관계에서 창조한 자 창조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기 원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 관계는 깨지게 되었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인간들에게 간절히 이해되기를 원하셨다.

찰스 크래프트는 이러한 전략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능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에게 간절히 이해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준거 기준을 포기하시고 오히려 인간의 준거 기준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들어오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수신자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과 배려로부터 시작되며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인간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전략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것이며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셔서 수신자인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셨듯이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신자인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다음 장인 제4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제 4 장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 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마다 심각해져 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시대의 청소년 문제는 비교적 단순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 형편의 어려움으로 진학을 못 하거나 결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드러내면서 생기는 교육문제와 관련한 문제들이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유형도 점점 다양해져 가고 범죄화되어감에 따라 과거의 교육문제로부터 이제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성은 2007:1).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에 있어서 청소년 전도는 그 시작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청소년 전도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다.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도 결국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붕괴가 그 원인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청소년 부흥과 청소년 전도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경이로운 교회성장을 이루었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있지만, 교회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급감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전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왜 교회 안 청소년들보다 교회 밖 청소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유는 바로 청소년 전도에

있어서 수신자들인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메시지만을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3장에서 연구했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적용하기 위하여 먼저 수신자들인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연구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앞에서 밝힌 바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한국 청소년의 범주는 14~19세이며,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지역교회 청소년들이 주가 될 것이다. 또한,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청소년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다양하겠지만 본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족과 학교와 친구 관계 및 중독에 대한 연구로 한정 지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

우리는 한 인간이 태어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와 그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인간관계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시작으로 사람은 누구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은 어떠할까?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비슷하겠지만 가족관계는 크게 수직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관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청소년들이 접하는 형제,자매와의 관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맺으면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또 자라가면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을 깊이 이해해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한두 명의 형제나 자매가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자의 아버지 시대만 해도 형제나 자매의 숫자가 오늘날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순위가 가족에서의 위상이나 역할, 심지어는 성격적 특성까지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 왔다(홍인중 2004:66).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갈등들을 많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 본 연구자는 이 부분에서는 큰 갈등이 없이 자랐다. 왜냐하면,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교회의 청소년 중에 5퍼센트 미만만이 외동아들이나 외동딸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형제, 자매가 있는 아이들이었다.

외동아들이나 외동딸들은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고 오히려 친구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도 같은 시기를 보냈던 인생의 선배로서 함께 공감해주고 들어줄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외동아들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경험해보지 못한 연구자에게 청소년 사역은 현재 한국 청소년들이 접하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심방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청소년들의 형제, 자매간의 갈등 케이스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저는 삼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 2명이 있는데 작은 누나는 연년생으로 같이 중등부에 있고 큰 누나는 고등부에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공부도 괜찮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들이 위낙에 공부를 잘 하다 보니 항상 시험을 치고 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성적으로 누나들과 비교를 당했고 그 비교가 이제는 평소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누나들은 누나고 저는 저인데 왜 성적 가지고 누나들과 저를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의 학생은 남자 중학생으로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 청소년 사역자로 부임했을 때 학생찬양팀의 싱어로 봉사하던 친구였다. 연구자가 부임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위로 작은 누나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큰 누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누나들은 아주 공부를 잘해서 큰 누나는 이미 특목고의 학생이었고 작은 누나도 외고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었다. 부모님은 서울대 출신으로 자녀들의 성적과 교육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분당의 학부모였다.

이 친구의 갈등을 보면 성적 차이로 인해 부모님께 비교를 당하고 그러한 스트레스로 누나들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상황이었다. 부모는 자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두 딸은 나무랄 곳이 없는 아주 착한 효녀로 대하고 막내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누나와도 상담을 해봤고 부모님도 만나봤었다. 누나들도 하나같이 동생이 아직 철이 없다고 생각했고 부모님은 막내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 나머지 항상 담당 사역자인 본 연구자만 보면 아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이 친구가 일으키는 갈등은 한 마디로 누나들과의 비교로 인한 경쟁으로 드러난 것이다. 형제나 자매 사이의 갈등 중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경쟁이다. 특히 분당과 같이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 성적으로 비교되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편이다. 물론 건전한 경쟁으로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자기 발전에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반면에 심각한 경쟁으로 형제와 자매간에 싸움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언어나 신체적으로 폭력과 학대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홍인종 2004:68).

물론 이러한 형제나 자매간의 학대는 서로 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는 비교적 덜 심각한 상황에서부터 동생을 아무 이유 없이 놀라게 하거나 서로를 위협하고 소유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신체에 손상을 입히고 발로 걷어차는 것 같은 심각한 상황까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McDowell, Hostetler 2000:386).

이 친구 역시 잦은 경쟁에 비교 의식이 깊이 자리 잡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좌절과 분노가 표출되어서 누나한테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공격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누나들은 동생이 철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그치게 되고 부정적인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점점 문제 있는 아들, 문제 있는 동생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다.

저는 두 살 차이 나는 형이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보다도 더 권위적이고 무섭습니다.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말대꾸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주먹이나 몽둥이로 엄청 때렸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고 형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두 형제가 모두 한 중등부에 출석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모두 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형은 만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에 학교 성적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상태였고 동생은 공부를 곧 잘하는 학생이었다.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반대의 스타일로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굉장히 솔직하고 내숭이 없이 거침이 없는 성격이셨고 어머니는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다. 아버지는 장남의 꿈을 지지하는 편이었고 어머니는 공부를 잘하는 동생에게 거는 기대가 컸다.

이 친구의 형은 동생에게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었다. 실제로 동생과 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부모님한테도 잘 안 맞고 자랐는데 형한테는 너무 많이 맞는다면서 자신이 혼나고 맞는 것의 95퍼센트는 부모님이 아닌 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자가 외동아들인 게 부럽다고 할 정도로 형에 대해 미움과 원망이 많이 있었다.

형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동생은 좀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은 다른 친구들의 동생들과 다르게 형인 자신의 말에 순종적이지 않고 늘 욕심을 부린다고 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버지는 형과 동생 사이의 위계 질서가 중요하기에 동생이 잘못하면 형이 언제든지 때려도 되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은 요즘 세대의 아버지답게 아들이 원하는 꿈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전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남이 미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연구자에게 늘 했던 말은 자기 아들들이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고 심지어는 매를 들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권위에 대해서 요즘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어머니는 장남의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차남에게 기대를 걸고 더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느꼈다.

두 형제와 상담을 해보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이들의 갈등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다. 먼저 형에게는 아버지가 위계 질서, 그리고 권위를 중요시하는

성향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동생에게 형으로서의 권위와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지는 비교적 공부를 잘하는 동생에 대해서 엄마의 편애가 느껴지자 동생에 대해 시기와 질투, 분노가 존재했다. 동생 역시 두 살 밖에 차이 나지 않는 형에게 마치 아버지보다도 더한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형제 사이의 갈등은 형제 가운데 힘이 있는 자가 자신의 힘을 보여 주려고 할 때 학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형들이 요셉을 학대하고 결국은 그를 이집트에 판 이야기이다. 그 마음의 기저에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 편애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다(홍인중 2004: 67-68).

이 사례 역시 형은 동생에게 형으로서의 권위에 대해 순종을 요구함으로써 불응할 시에 자신의 힘을 육체적인 폭력으로 보여 주었고 그 마음의 기저에는 어머니의 동생 편애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갈등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본 연구자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심방을 통해서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형제자매와 갈등을 느끼는 내용을 상담했을 때 비교적 덜 심각한 상황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아래의 <표 1>은 가족관계에 관한 한 논문에서 인천광역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는 내용을 설문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이다.

<표 1>

형제자매와 갈등을 느끼는 내용: 고등학생 집단
(박현숙 2003:42)

	전체	성별	
		남	여
1. 의견차이	57 (29.2)	21 (28.0)	36 (30.0)
♣다툼	30 (15.4)	9 (12.0)	21 (17.5)
♣의견차이	27 (13.8)	12 (16.0)	15 (12.5)
2. 갈등없음	49 (25.1)	23 (30.7)	26 (21.7)
3. 순종하지 않음	39 (20.20)	10 (13.3)	29 (24.2)
♣서로 욕심부림	18 (9.2)	5 (6.7)	13 (10.8)
♣동생이 순종하지 않음	12 (6.2)	1 (1.3)	11 (9.2)

㉓이기적인 행동	7 (3.6)	4 (5.3)	3 (2.5)
㉔무시함	2 (1.0)	-	2 (1.7)
4. 이해부족	15 (7.7)	7 (9.3)	8 (6.7)
㉕나이차이	7 (3.6)	3 (4.0)	4 (3.3)
㉖서로에 대한 이해부족	6 (3.1)	2 (2.7)	4 (3.3)
㉗대화부족	2 (1.0)	2 (2.7)	-
5. 성격차이	14 (7.2)	7 (9.3)	7 (5.8)
6. 성적차이	10 (5.1)	2 (2.7)	8 (6.7)
7. 기타	11 (5.6)	5 (6.7)	6 (5.0)
㉘부모님께 이름	2 (1.0)	-	2 (1.7)
㉙잔소리함	1 (.5)	1 (1.3)	-
㉚기타	8 (4.1)	4 (5.3)	4 (3.3)
계	195 (100.0)	75 (100.0)	120 (100.0)

물론, 분당이라는 지역과 인천이라는 지역에 있어서 교육의 질이나 경제적인 수준, 도시의 기능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지역교회 청소년들 역시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표에서 나타나는 형제, 자매간 갈등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 청소년들이 접하는 부모와의 관계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족관계의 기본이 된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무력하고 연약하게 태어난 자녀의 생존을 위해 물리적으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자녀가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결국, 생물학적으로 유기체적인 존재가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커다란 기반이 되는 것이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180).

그러므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자녀는 부모를 떠나 독립할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며 특별히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자녀와 부모 관계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불안정한 과도기인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일탈의 행동들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일탈 행동이 대부분 결손과정과 같은 비정상적인 가족구조나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가정의 환경적인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상적인 가족구조 속에서도 부모의 과잉보호나, 무관심 등의 부적절한 양육 및 훈육방식과 같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위기의 환경 가운데 있다(이성은 2007:47).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한 지역교회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스트레스받는 것은 바로 성적이었다. 물론 이 시기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거리는 역시 학업에 관련한 문제로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비껴갈 수 없는 공통된 관심사임이 분명하다. 게다가 분당이라는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과 교육환경까지 가세하니 이 지역의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학원과 과외 등 하루에 몇 군데씩을 다니면서 소화해내야 할 일정이 너무나도 벅차 보였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상담이나 심방 일정을 잡으려고 할 때도 아이들의 학원과 과외일정 때문에 한 군데의 학원을 마치고 다른 학원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에 잠깐 분식집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적도 많이 있었다. 다음 사례는 학교에서 성적이 아주 좋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극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한 친구의 이야기이다.

엄마 아빠는 늘 저에게 시험에서 만점을 맞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늘 만점만 맞을 수 있겠어요? 만점을 못 받는 날에는 엄마 아빠의 실망과 함께 한숨 소리도 커집니다. 엄마 아빠는 제 학교 성적에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만점을 받아 온 날에는 조금 쉬고 싶기도 하고 칭찬도 받고 싶은데 엄마 아빠의 반응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는 만점을 받아 온 날도 반에서 만점 받은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제가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 숨히 막혀 미칠 것 같아요.

위의 학생은 본 연구자가 사역했을 당시 중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이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친구관계도 좋은 학생이었다. 이 친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늘 노력했었고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아이였다. 그러나 이 친구의 얼굴에 늘 어둡고 지친모습이 역력했었다. 이유를 알고보니 부모님은 다른 교회를 다니셨는데 부모님 두 분다 서울대 출신이셨고 현직 의사로 자녀에게 늘 완벽주의를 강요하는 분들이셨다.

그래서 자신이 만약 서울대를 가지 못하면 부모님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라 기계처럼 공부하면서 서울대가 아니면 마치 세상이 끝나버릴것만 같은 무게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상담하면서 이야기만 들어도 본 연구자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정도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견뎌낼까 염려가 되었다. 또한 신앙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부모님께 물어보았을 때 그런 것 신경 쓸 시간에 공부하라면서 신앙생활은 대학을 간 후에 해도 늦지 않더라면서 부모님의 반응은 늘 싸늘했다고 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해서 부모님과 의견 충돌 중에 있는 학생의 이야기이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원하시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도 아주 좋고 학교 평점이 높아서 명문대 진학률도 상당히 높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학교가 대순진리회 제단에서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엄마에게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너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너의 신앙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되는 일이고 그 학교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이 더 신앙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는 본 연구자가 사역할 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친구였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중등부 회장으로 섬겼던 친구이다. 본 연구자와 함께 중등부에서 3년 동안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고등부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마가 원하는 학교가 대순진리회에서 세운 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학교는 못 가겠다고 하면서 엄마와 갈등 중인 상황이었다.

이 친구와 부모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담당 사역자로서 지켜보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며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 자녀는 믿음이 자라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선택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는 오히려 자녀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높은 평점의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내세우며 오히려 자녀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 친구의 부모님과도 상담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도사님도 우리 나이가 되어서 자녀가 학교를 진학할 때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라는 대답과 함께 ‘신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부에 더 집중해야 할 때고, 그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배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보내는 것도 아니니 이해해달라’는 것이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본 연구자도 자라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이러한 말들이 공부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자신의 공부를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심지어는 더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이다.

학업에 있어서 1등은 한 명이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청소년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1등은 1등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으며 1등을 못 지키면 불안해서 죽고, 꼴등은 꼴등이라고 죽는 것이 한국의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다(이재욱 2009:65-66).

위의 두 가지 사례 모두 성적과 진학에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다. 성적과 진학에 관련된 갈등과 고민은 사실 분당이라는 지역의 교육환경을 넘어서 한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며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울고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성적이 조금 떨어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같으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오해와 갈등이 쌓여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그 아이들 가운데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 아이들도 자신이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자신들의 부모가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친구들도 있었다. 청소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모로부터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독립을 이루어 건강한 분화를 하는 것이다(홍인중 2004:71).

그러나 아직도 초등학생처럼 자신을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 때마다 발신자가 누구인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모습, 학교나 학원 그리고 교회 외에는 늘 감시받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어서 소원함과 친밀함의 갈등이 의존과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청소년이라는 정체성이 부모와 보내는 시간에 상관없이 의존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Rowartt 1999:143).

이렇듯,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의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심방한 결과 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역시 성적과 진학문제에 관련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한 갈등이 문제의 원인이었다.

물론 한국의 어느 부모들이 이 시기에 자녀들의 성적에 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사회성과 인격, 신앙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속에서 성적만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코너로 몰아가는 현실이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다.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환경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일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자의 중·고등학교 시절만 생각해보더라도 이른 아침부터 등교해서 야간 자율학습시간까지 하루의 두 끼를 학교에서 먹으면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교란 이제까지 자신들을 돌봐왔던 부모의 보호와 간섭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또래 집단이라는

그룹에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다면 한국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학교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청소년기의 인간관계는 주로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 관계가 대부분이다. 부모와 형제와의 관계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에 관해서는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환경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래 집단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즉, 자신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존경할 만한 인물을 설정해서 동일시하거나 자신이 속한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Erickson 1959:92).

이렇게 자신이 속한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또래 집단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아 형성과 발달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물론 이 큰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다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영향이란 또래 집단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나고 건전한 동기부여와 모방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숙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또래 집단이 순기능적인 역할보다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홍인중 2004:86).

부정적인 영향이란 이 시기에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 인해 지금까지 살면서 해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담배를 피워 본다거나 술을 마시고 물건을 훔치는 등의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행동들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영향만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특별히 호기심 많은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충동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 역기능이란 청소년들이 또래 압력에 부담을 느껴 본인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까지도 또래 집단 안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순응해야 하거나 그것을 거부했을 때 생기는 또래 집단 안에서의 소외감이다. 그리고 그 소외감이 심각해지면 또래 집단 안에서 집중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왕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따돌림에서 발생하는 동급생들 사이에서의 폭력과 구타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는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아래의 사례들은 본 연구자가 상담한 또래 집단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이다.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지내고 싶어요. 만약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친구들에게 외면을 받는다면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옷 입는것도 외모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절대 실수가 없어야 하고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또한, 그렇지 못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면당할 때도 그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저마저 외면할까 봐 그냥 무시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서 사역할 때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던 학생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유독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외모나 말하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강박증이 있다 싶은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 이 친구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 즉, 친구들한테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항상 친구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너무나도 강한 친구였다. 그러다 보니 말이나 행동에서 또 옷을 입는 것에서도 혹시나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옷을 좀 이상하게 입어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 그룹에서 끼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분명 자신이 생각해도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것들까지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는 가운데 고민이 되었다. 분명히

이런 행동은 나쁜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불구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고 못 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하면서 친구들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까지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웃이라든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행에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 친구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까지도 친구들에게 그런 유행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서 외면당할까 봐 친했던 친구를 무시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분위기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의 상담사례를 들어보겠다. 이 친구는 믿음 생활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저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하여 4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같은 반이었고 중학교도 다 같은 학교, 고등학교도 다 같은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만 교회를 다닙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저만 동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친구초청잔치 주일에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만 끝나게 되었지 신앙을 받아들이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3명의 친구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는데 친구들은 술 마시고 신나게 놀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소외감이 느껴졌고 친구들은 점점 저에게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등등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로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만 연락해서 약속을 잡고 저한테는 모르는 척하고 카카오톡도 3명 방을 따로 만들어 연락하고 이제는 4명 방은 거의 대화가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따지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눈물만 흘리며 점점 저만 소외시키는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위의 학생은 여학생으로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학생이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 3명을 포함하여 4명이 아주 절친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고민은 언제나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이었다. 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던 친구였다. 그래서

친구초청잔치나 야외예배 같은 특별한 활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친구들을 꼭 데리고 나왔지만, 친구들이 교회에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과 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친구들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늘 기도하며 고민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기특한지 눈물이 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이 친구를 보니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막상 외부의 자극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고 상처받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케이스를 종합해보면 한 케이스는 또래 집단에서 생기는 압력에 부담감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또래 집단안에서의 갈등이다. 또 다른 한 케이스는 또래 집단 안에서 신앙의 문제로 인해 신앙이 없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것은 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신앙이 없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마주할 수 있는 또래 집단 안에서의 갈등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 모두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마주하고있는 또래 집단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역기능적인 측면의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환경이다.

이성 교제

1980년대 후반 한국의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져 감에 따라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가 향상되었고 과거보다 눈에 띄게 청소년들의 발육이 서구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자라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성적인 성숙과 관심도 과거보다 현저하게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로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를 여전히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한 여러 가지 이성

교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성세대들은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염려하고 있다(조승희 2003:1).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를 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만약 이성 교제를 해도 된다면 그 시작은 언제가 좋은 것인지, 그리고 이성 교제를 한다면 신체적인 접촉은 어디까지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전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켜 온 주제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지역교회에서도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심방하면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이성 교제였다. 대부분 청소년이 상담이나 심방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성 교제에 관련해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면 일방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답변만을 듣고 오기 때문에 반항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왔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대답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청소년기에 이성 교제는 절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반대만 해서 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성 교제는 과거의 시대와는 다르게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기필코 해내는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성 교제란 소수의 학생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대다수의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성장발달 과정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왕경아 2016:2).

그렇다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접하는 학교환경 중에 이성 교제가 문제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성 교제 자체를 문제 삼고 이성 교제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은 그들의 갈등과 문제를 더욱 증폭시키는 구실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성 교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기의 이성 교제가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들의 정서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환경이며 문제이다.

아래의 <표2>는 경기 북부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 정도를 설문 조사한 것이다.

<표 2>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 정도
(조승희2003:44)

	경험없다	손잡기 까지	어깨동무 까지	가벼운 뽀뽀까지	키스까지	가슴만지 기까지	성기만지 기까지	성관계 까지
남	47(17.9)	26(9.9)	36(13.7)	35(13.3)	72(27.4)	8(3.0)	5(1.9)	34(12.9)
여	35(11.7)	42(14.1)	55(16.8)	50(16.8)	100(33.6)	3(1.0)	0(0)	13(4.4)
중3	22(15.9)	22(15.9)	32(23.3)	24(17.4)	27(19.6)	5(3.6)	0(0)	6(4.3)
고1	22(11.3)	22(11.3)	36(18.6)	31(16.0)	58(29.9)	1(.5)	5(2.6)	19(9.8)
고2	38(16.6)	24(10.5)	23(10.0)	30(13.1)	87(38.0)	5(2.2)	0(0)	22(9.6)
전체	82(14.6)	68(12.1)	91(16.2)	85(15.2)	172(30.7)	11(2.0)	5(.9)	47(8.4)

이 조사의 대상자는 총 1067명으로 남자가 550명이었고 여자가 517명이었다. 이 중에서 중학교 3학년은 328명, 고등학교 1학년은 360명, 고등학교 2학년은 375명이었다. 그리고 전체의 52.6 퍼센트인 561명이 이성 교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위의 <표2> 는 이성 교제의 경험이 있다고 설문에 응한 학생 중 다시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 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전체 청소년 중 이성 교제 시 신체접촉으로 키스까지 경험한 경우가 30.7 퍼센트(172명)로 제일 많았고 어깨동무까지 경험한 경우 16.2 퍼센트(91명), 가벼운 뽀뽀까지 15.2 퍼센트(85명), 경험 없다 14.6 퍼센트(82명), 손잡기까지 12.1 퍼센트(68명), 성관계까지 8.4퍼센트(47명), 가슴 만지기까지 2.0 퍼센트(11명), 성기 만지기까지 경험한

경우 0.9퍼센트(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벼운 뽀뽀까지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키스까지 이후 단계부터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관계까지는 학년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다(조승희 2003:22-44).

또한, 한국기독교 청소년선교회에서 출판한 “십대 청소년의 의식과 삶”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중 928명(남학생 483명, 여학생 445명)을 조사했는데 이중 이성 교제를 하는 청소년이 32.7 퍼센트였고, 이성 교제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67.3 퍼센트였다. 그리고 이성 교제를 하는 청소년 32.7 퍼센트(301명)중 신체 접촉 정도에 대해서 키스까지 33.6 퍼센트, 성관계까지 23.6퍼센트, 손잡기까지 22.6 퍼센트, 포옹까지 10.6 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기독교 청소년선교회 1997:49-53).

위의 조사들을 살펴보면 벌써 15년, 20년 전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까지 경험한 청소년들이 20퍼센트가 넘어가는 상황들을 볼 때 오늘날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서 신체접촉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들여다볼 수 있다. 물론, 지역에 따라 학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설문조사에 솔직히 답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청소년이 이성 교제에서 신체접촉의 정도가 성관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 역시, 분당의 지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심방할 때 그들의 이슈는 이성 교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도 이성 교제 시 신체 접촉에 대한 문제였다. 여학생들은 이성 교제 시 관계적인 친밀함을 원하지만 만나는 이성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자꾸만 더 깊은 신체 접촉을 원하게 될 때 본인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또 만나는 이성을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지도 못해서 성적 접촉에 대해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남학생들은 또래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으로 인해 자신이 이성 교제하는 여학생과의 관계에서 신체 접촉을 어디까지 했느냐가 마치 영웅 심리처럼 작용해서 강압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해서 자신이 원하는 단계까지 이루어내야 또래

집단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래 집단에서 소외당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이성 교제의 현실이다. 이성 교제의 옳고 그름이나 시기의 문제보다도 일단 이성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신체 접촉이 얼마나 자연스럽게도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문제다. 이것은 오늘날 청소년의 성 의식이 이성 교제 시 신체 접촉에 대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혼전 순결의 이슈를 넘어서 성폭력과 10대 임신, 그리고 낙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

앞에서 언급했던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이성 교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 의식으로 인해 신체 접촉의 수위가 성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고 오히려 성폭력과 10대 임신, 낙태와 같은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스나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과 문제들이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을까? 그것은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 시기의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미디어 중독은 그 부작용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미디어 중독의 확산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한 수준이다.

인터넷 중독률은 2009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09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성인보다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육수한 2010:32).

그리고 통계청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96.6 퍼센트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한국 청소년은 거의 모두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중독률이 해마다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중독률은 10대 청소년 기준으로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터넷 중독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30-32).

해마다 가격은 내리고 속도는 높아지는 인터넷 환경과 너무 많고 다양한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인터넷의 사용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관해서 연구 조사에 보고되는 수치는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고,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다. 인터넷이 생기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되었고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생활과 관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다양하고 긍정적인 기능을 가져다주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이 제공하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움들을 받고 있으며 또래 집단과 몸이 떨어져 있을 때도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통신 이상의 역할을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 신조어들이 생기면서 어른들은 알기 힘들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독특한 청소년 문화를 배출해 내는 데도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박승민, 조영미, 김동민 2011:15).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도움을 통해 학습 능력을 증진하는 것,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는다. 인터넷의 부정적인 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나머지 발생하게 되는 역기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폭력성, 그리고 성적인 충동을 지나치게 자극하면서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기도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1).

이렇게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성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 시절에 성의 사회화는 부모나 학교, 그리고

또래 집단 및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을 금기시하는 유교적인 문화 때문에 부모에 의한 성의 사회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인 지식의 접근이나 형식적인 접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기에 자신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또래 집단이나 음란물의 접촉 등을 통해 극히 단편적인 사실을 극단적으로 왜곡하게 되고 환상을 자극하는 잘못된 성 지식으로 발전하여 이것이 이성 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기세정 2003:14).

또한, 맥도웰과 호스테틀러는 그의 저서에서 포르노그래피에 중독되는 위험성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포르노그래피는 성 중독의 열쇠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사람은 - 거의 언제나 남성들 - 포르노그래피에 말려든다. 노출이 심해지면서 그런 재료들에 대한 갈망도 커진다. 그는 드디어 포르노그래피가 제시하는 시각적 자극의 결과로 그가 얻는 해방감에 중독된다. 그러한 상승은 더 심각해져서 변태적인 재료들을 사용해야 하고,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해방감을 얻으려 하며, 드디어 그를 자극하는 그런 행동을 스스로 자행함으로써 해방감을 얻으려고 한다. (McDowell, Hostetler 2000:83)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폭력이 난무하고 이성 교제 시 신체 접촉의 단계가 성관계까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 10대의 임신과 낙태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음란물들은 인터넷의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퍼져 나가고 있으며,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절반 이상이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포르노 중독은 최근 들어서 여학생이나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세계적인 인터넷 조사 기관인 넷밸류(net value)는 한국 네티즌들의 포르노 사이트 방문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홍인중 2003:226).

본 연구자가 사역했던 분당의 한 지역교회 청소년들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중독에 관한 문제가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중학교 1, 2학년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음란물 중독보다는 게임 중독이 더 문제였지만 중학교 2학년 후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는 표면적으로도 음란물 중독이 더 문제가 되었다.

특히, 요즘처럼 1인 1 스마트폰 시대에는 피시방이나 자신의 집과 같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음란사이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음란사이트들을 접속하는데 성인인증과 같은 기본적인 절차도 없이 클릭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그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었다.

물론, 오늘날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필수품인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음란물을 접한다고 해서 곧바로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음란물을 접하는 것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상태처럼 정상적인 성을 왜곡하여 잘못 사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충동으로 잘못된 성에 의존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심각한 성중독으로까지 몰고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중독된 환경이며 이것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

요약

지금까지 4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논의하였다. 첫째는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에 대해서 다루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게 되는 인간관계는 가족과의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족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들의 가족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논의하였다. 한 가지는 가족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었고 다음으로는 다른 한 가지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한 가족 안에서 성적으로 인한 부모의 비교가 시발점이 되어서 형제, 자매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성적과 진학의 문제,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부모의 과잉보호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은 성적과 진학에 관련된 것들이었다. 물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시기에 성적이나 진학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받지 않는 청소년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사회성과 인격, 그리고 신앙의 문제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경쟁의식과 비교의식 속에 코너로 몰리고 있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둘째는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환경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대부분 일과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학교생활은 청소년들에게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한국 청소년들의 학교 환경을 크게 두 가지로 논의하였다. 한 가지는 또래집단에 대해서 다루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이성 교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자신이 속한 소속 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을 가지는데 이것이 또래 집단을 만들어 낸다. 이 또래 집단은 청소년들의 자아 형성과 발달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에 한국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란 왕따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또래 집단에서 생기는 압력에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심지어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하는 상황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성 교제 역시, 또래 집단의 압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이성 교제 시 신체 접촉에 관한 문제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정서는 상당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데다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또래 집단의 압력에 의해 이성 교제하는 상대방과 신체 접촉의 수위가 영웅 심리를 불러 일으키고 여학생들은 분위기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을 허락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10대 임신이나, 낙태와 같은 충격적인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된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한국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부정적인 영향이나 문제들을 심각하게 대두시키는 주범이 바로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여전히 청소년 전도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신자들인 한국 청소년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그들의 마음을 얻지도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이해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토대로 그들을 위한 전도 전략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에 대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다.

제 5 장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전략

지금까지 제4장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다루면서 한국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가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이로운 교회 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교회는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며 쇠퇴하고 있다.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에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신뢰성의 결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에 직접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감소에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 비율이 크게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 비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을까?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마다 각종 전도프로그램을 통한 전도 집회와 전도행사가 넘쳐나는데 왜 교회마다 청소년들의 출석수는 점점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기존의 전도 방식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존의 전도 방식을 생각하면서 본 연구자에게 전도를 대표하는 한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노방전도이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의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생각해보면 교회의 전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방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도 어린 시절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정문 앞에서 여름 성경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 나오신 선생님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했었고 청소년기에는 찬양팀들과 함께 거리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방전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본 연구자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전도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영리, 전도폭발, 다리 전도, 태신자 전도 및 총동원 전도, 부흥회 등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고 이것이 한국 교회의 양적 부흥에 영향을 미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자라서 사역자가 되었을 때 앞에서 언급했던 전도 프로그램들은 적어도 청소년들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어린 시절의 기억과 추억을 더듬어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추어 전도를 나가보았지만,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

단순하게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만 생각해보더라도 노방 전도를 포함한 기존의 전도방식이나 프로그램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대화가 거의 없이 발신자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신자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없다. 또한, 전도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종교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발신자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용어가 수신자에게는 전혀 생소한 용어가 되어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이정구 2012:41-47).

이것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는 청중을 아셨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의 배경과 필요를 아셨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부터 출발했다. 예수는 상황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상황에 따라 다른 전략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수는 수신자를 고려하여 수신자가 성경의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상황에 따라 메시지를 조절하는 상황화 전략을 사용하셨다(Engel 1991:15-16).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전도방식들은 수신자인 전도 대상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도 방법이며 특히 이 시대의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적합하지 않은 전도 방법이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기존의 전도 프로그램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한국 교회가 이러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었으며 지금도 지하철역이나 대로변에서 노방전도 하는 전도자나 전도팀을 보면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시대는 과거의 모던 시대와 다르게 많은 부분이 변해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도 환경과 전략이 필요하며 더욱이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전도전략이 필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국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할 것인가? 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청소년 전도의 필요성과 전략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며 그 전략의 기초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과 전도의 성패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5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한국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물론, 여기서 본 연구자가 다루는 전략은 직접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략적 원리를 다루는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관계를 통한 전도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의 역사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관계라는 선로 위에 움직여 왔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세워진 교회 역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위에 존재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Bright 1994:30).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에서 관계가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큰 것이며 전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교학적으로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으로도 복음 전달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다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전도에서 관계를 활용한 복음 전달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전성결 2009:43-44).

전성결은 그의 저서 *타문화 관계 전도* 에서 관계 전도에 대해서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인간 유대 관계망과 수용자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문화 형식을 다리로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선교적 행위”라고 정의한다(2009:44).

청소년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행사와 초청 집회,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서 실행해보았지만 실제로 전도가 되는 경우를 볼 때, 청소년 전도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칠십 인을 파송하여 각 지역에 전도하게 하실 때 이웃과의 평안과 교제를 통해서 먼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이정구 2012:55).

이재욱은 그의 저서 *중고등부, 2년 안에 성장할 수 있다* 에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전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뭔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아이들도 만나기를 꺼린다. 그냥 즐겁게 만나라. 바로 사영리를 꺼내고, 전도폭발을 할 필요가 없다. 청소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이재욱 2009:145)

그렇다. 청소년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되어지는 것이다. 사실 청소년 전도는 청소년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것이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청소년 사역자들 누구나 사역 현장에 부임하고 나면 청소년 전도와 정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단이나 총회, 각 선교단체에서 주최하는 전도 프로그램이나, 정착 프로그램 같은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소년 전도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관계를 통한 전도에 필요한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자.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

청소년기는 모든 면에서 민감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또래 친구는 자신의 자아정체성과 가치관이 결정되고 삶의 질이 결정될 만큼 또래 집단이 주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래 집단이 함께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시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에 대한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기 힘겨운 시기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과 같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앞서 제4장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처해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할 때 그들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꾸면 또래 친구를 통한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들의 학교 환경 안에 만들어진 또래 집단은 서로서로 전도하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연구조사에서 한국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전도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노방전도’ 보다는 ‘관계전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또한,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을 한 사람만 고르라’는 질문에 또래 친구라고 답했으며, ‘지금 전도한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8퍼센트가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답했다(황병배 2015:524-526).

이러한 설문 결과를 볼 때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전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에 앞서 또래 친구를 통한 전도를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재미있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도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없다면 교회 밖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가능성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기존의 청소년들에게는 교회를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교회를 가볼 만한 곳으로 인식시켜주는 기초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앞서도 언급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청소년 전도는 청소년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것이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청소년 사역자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청소년 전도를 위해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이런 또래 친구들과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말이 되면 반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 친한 또래들끼리 묶어주는

반 편성을 했었다.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을 때 일부 교사들은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너무 끼리끼리만 놀게 된다고 염려했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의 모든 청소년의 정서가 끼리끼리 노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 또래 친구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서로가 다 함께 친해져야 한다면 반 편성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특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친한 또래들끼리 묶어주는 반 편성을 적용해 본 결과 아이들의 출석도 유지되었지만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교회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것도 훨씬 빨랐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또래별 MT와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주었다. 보통 한국 교회의 청소년부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학생 임원 수련회, 찬양팀 수련회 정도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1년에 6차례로 두 달에 한 번씩 또래별 MT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소그룹을 형성할 때 아이들의 취미를 고려해 꼭 성경공부나 말씀 묵상, 제자훈련반만을 고집하지 않고 봉사 활동 그룹, 축구, 수다, 찬양, 악기 등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그룹을 만들어 주었다. 꼭 정기적인 수련회처럼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친한 또래들끼리 수련회 모임을 만들어 주었더니 점점 그 모임에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한국 청소년들은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과중한 학업과 비교의식의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학업과 진학에 관한 갈등이 있고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도 비교의식이 주는 갈등 속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있는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략은 그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면서 함께 느끼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이다.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관계 전도

그렇다면 관계 전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까지, 그리고 교회로 데리고 온 후에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능적인 전략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장기적인 관심이다. 사실 모든 전도가 그래야겠지만 특히 청소년 전도에서는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전도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신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기로 하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인가’를 묻는 말이 있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83퍼센트가 1개월에서 6개월, 8퍼센트가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3퍼센트가 1년에서 2년으로 답했다. 이것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전도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교회에 다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전도에서 6개월이 상당히 중요한 기간임을 알 수 있다.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전도는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황병배 2015:524-525).

실제로 본 연구자가 청소년 시절 친구를 전도했던 경험과 또,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는 과정들을 떠올려보면 보통 쉽게 오는 친구들은 이상하게도 쉽게 떠났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오랜 공을 들여 전도한 친구들은 쉽게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청소년 전도에서 전도자들이 지속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도를 할 때 그들의 결단을 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또래 친구들을 통한 관계 전도의 기능적인 전략도 결국 장기적인 관심이 없다면 정착과 열매를 맺기 쉽지 않다.

대부분 한국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이미 경험했겠지만, 총동원 전도 주일과 같은 전도 집회나 행사를 통해서 허탈감을 맛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총동원 전도 집회의 목적은 얼마나 많은 인원을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에 초점을 두고 일회용 전도 집회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날짜를 정하고 신앙이 있는 연예인을 초청해서 특별한 무대를 계획하고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조건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집회였다. 그리고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보다는 그 집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친구가 왔는지로 전도 집회의 성패를 평가했다.

본 연구자도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런 전도 집회를 분기별로 기획해서 진행해 보았다. 얼마나 많은 친구가 왔는지로 평가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성공한 집회였다. 각 반 교사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왔고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구들을 무조건 데리고 와야 한다는 부담감에 다른 교회 친구들과 서로 품앗이하듯이 도와주면서 머릿수를 채운 경우도 제법 있었다. 이것은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무대나 행사가 주체가 되어 교회 밖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으나 청소년들이 전도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과정적으로 실패한 집회였다.

물론, 이러한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교회도 갈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하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도해서 정착을 시키는 측면에서는 그 의미가 아주 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전도 집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전도 집회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행사가 아닌 주일 예배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매주 특별한 행사로 환심을 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매주 특별한 행사를 위해 재정이나 예산을 지원할 만한 교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전략인 관계를 통한 전도가 기능적인 전략과 아이디어만 가지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전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도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고 쟁기질을 해서 토양을 준비하고 추수하기 위해 뿌린 씨 위에 물을 대고 비료를 주어서 추수하는 과정이다(Farley 1996:100).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의 감소에 부담을 가진 나머지 숫자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전도의 씨앗을 뿌리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청소년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삶에 열매를 맺는 전도의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계를 통한 전도는 일회적인 프로그램의 전도가 아니다.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꾸준히 만나면서 삶으로 전도할 때 수신자인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화를 통한 전도

청소년 시기는 모든 면에서 민감한 시기지만 특별히 문화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민감한 세대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개성이나 특징들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 아직 자아정체성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문화에 휩쓸리거나 폭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한 다음에 그들을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성세대들과 현재의 한국 교회는 청소년들을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문화로 인도하려고만 했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지 못해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통로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문화는 기성세대들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문화에게서 벗어나서 일종의 대안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런 대안적인 문화가 청소년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윤영대 2011:141-142).

물론, 문화를 통한 전도에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중문화가 상업적 목적으로 상품화가 되고 기업화가 되면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저질문화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문화를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치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은 없이 무조건 막아서고 반대한다면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은 대중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2014년에 개봉한 대런 애러노프스키(Darren Aronofsky) 감독, 러셀 크로(Russell Crowe) 주연의 *노아*라는 영화 때문에 기독교에서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유는 이 영화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왜곡한 반기독교적 작품이라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 단체를 비롯하여 여러 개교회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다.

본 연구자도 영화가 개봉할 당시 사역하던 분당의 한 지역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었다. 그 당시 교사 월례회를 하는데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영화를 보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노아를 더 제대로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비기독교인들도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아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그냥 신화 속 인물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텐데 오히려 이 영화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이 저렇게 살아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으로 문화를 통한 전도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도 전략으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잘 적용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문화를 알고 그 문화와 공유될 수 있는 접착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문화를 통한 전도에 필요한 접착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문화전도

4장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중독된 환경 대부분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관련된 중독이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은 더 빨라지고 가격은 저렴해지며 최신 사양의 스마트폰은 시장에 넘쳐나고 있다. 그러므로 해가 갈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비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관련된 범죄와 문제점들도 더욱 심각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1인 1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인터넷을 못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대안이 될 수도 없다. 오히려 이것은 전도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중요한 접착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부임한 첫날 부장 교사가 예배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한 학생의 스마트폰을 뺏으면서 발생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부장 교사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사였지만 너무나가부장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서 전혀 소통되지 않고 있었다. 물론, 사역자의 입장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지도해주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한편, 이 학생은 동네에 있는 조그만 지역 교회를 다니다가 또래 친구가 너무 없어서 또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바로 한 주 전에 교회를 옮긴 학생이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학생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사태가 심각해지니 다른 교사들이 본 연구자에게 찾아와 이 사건을 좀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본 연구자가 이 학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계를 보려고 스마트폰을 잠깐 꺼냈는데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울분을 토했다.

상황을 다 듣고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부장 교사와 대화를 하고 스마트폰을 찾아서 잘 돌려주었다.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되었고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동안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학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이다. 인터넷을 못 하게 하고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전쟁이 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을 금지하고 빼앗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옷을 입어야 한다. 그것만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지혜로운 도구로 잘 사용한다면 오히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CCM을 활용하는 문화전도

또 한 가지의 접촉점은 바로 음악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읽는 것과 쓰는 것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다. 이 시기는 지극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세대이다. 그런 그들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하는 창구이며 하나의 언어가 된다(안신 2009:113).

이러한 음악으로 문화의 옷을 입혀 청소년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음악이다. 흔히 이것을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의 약자로 CCM이라고 부르는데 본 논문은 CCM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하 간략히 CCM이라고 명명하겠다.

실제로 CCM은 교회 밖 청소년들에게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음악이다. 본 연구자의 청소년 시절만 생각해봐도 연구자가 친구들을 전도했을 때 친구들이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CCM이었다. 그 이유는 바로 리듬과 멜로디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대중음악에서 즐기던 취향의 리듬과 멜로디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에서도 듣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가 CCM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마치 CCM은 세속적이기 때문에 불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자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한 지역교회에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찬양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CCM을 불렀다가 한 성도한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꾸중을 들은 적이 있다. 심지어 CCM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까지 깎아내렸다. 만약 이런 꾸중을

들은 사람이 본 연구자가 아니라 청소년이었다면 어땠을까?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CCM이 좋아서 온 청소년이었다면 어땠을까?

찬송가를 부르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찬송가의 은혜로운 가사나 멜로디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 드리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힘일 것이다. 이러한 가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생소한 단어이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이 언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CCM은 활용도가 아주 높은 전도 전략이다. 전통적인 찬송가들로 거부감을 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음악의 스타일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변화된다면 CCM은 전도전략으로서 충분한 임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분당의 한 지역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찬양팀을 통해서 전도되는 비율이 꽤 높았다. 청소년기에 풍부한 감수성으로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CCM에 자연적으로 관심을 두게 되고 그러한 음악을 듣다 보면 악기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면서 악기를 연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악기 하나라도 배우려면 실용음악학원에 다녀야 하는데 청소년기에 그만한 돈도 없고 부모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 악기들을 만지고 배울 기회를 주게 되면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교회에 정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라면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도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음악에 복음의 옷을 상황화 시킨 것이 바로 CCM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화로 살아가셨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선교의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접착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접촉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를 이해한 전도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이 될 것이다.

요약

지금까지 제5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다루었다.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마다 전도에 열심을 내면서 전도를 하는데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청소년들의 원인을 본 연구자는 기존의 잘못된 전도 방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수신자의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메시지 선포의 전도였으며 이 시대의 한국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전도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한국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도 환경과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이며 이 전략의 구체적인 원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먼저 관계를 통한 전도이다. 기독교의 역사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의 역사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에서도 관계가 차지하는 역할을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 전도에서 기존의 청소년 전도가 여러 가지 전도 행사와 집회,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서 실행해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인원은 불러 모을 수 있으나 정착과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는 별로 소득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또래 친구와 또래 집단의 매우 큰 영향을 받는 시기적 특징을 고려하여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를 언급하였다. 또래 친구를 통한 관계 전도를 위해 또래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면서 서로 함께 공감하고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 전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까지 또 정착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능적인 전략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기적인 관심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를 통한 전도를 살펴보았다. 청소년기는 문화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은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 그리고 해가 갈수록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무조건 막기만 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오히려 그런 문화를 잘 활용해야 한다. 그런 문화의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도 전략과 CCM을 활용하는 전도 전략이다.

본 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통해 살펴본 청소년 전도 전략은 오늘 한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도 전략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전도 전략의 원리를 잘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죽어가는 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점점 줄어드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6 장

결론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기독교적인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탐구하고, 한국 청소년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상황화된 전도 전략을 세워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제시하고 적용하는 목적으로 본 논문을 연구했다. 이제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여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자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이 한국교회 청소년 전도에 필수적인 상황화 전략임을 밝히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는 무엇인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를 통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인가? 한국 청소년들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환경은 무엇인가?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연구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논지,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핵심연구주제, 질문, 한계, 정의, 가정, 방법론, 개관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이해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요소, 과정, 원리를 통해 살펴보았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발신자의 메시지가 수신자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 공감하고 반응하는 쌍방향의 소통 과정이다. 그러기에 커뮤니케이션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바로 상황이다.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상황에서 발생하고 영향을 받기에 메시지가 획일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함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6가지 원리가 있는데 결국, 이 원리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잘 사용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독교적 이해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것을 위해 먼저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와 선교학적 기초를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찰스 크래프트의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커뮤니케이션의 성경적 기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참여, 성육신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최초의 발신자인 하나님께서 수신자인 인간들과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하기 원하시며 가장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셨음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통하여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선교학적 기초가 되는 것임을 증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여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것처럼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위해서 그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가족 환경과 학교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족 환경에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었는데 이것을 크게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한국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가족 환경에서 가족과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대부분 갈등의 원인은 성적과 진학, 그리고 부모의 비교의식과 경쟁이 원인이었다.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또래 집단과 이성 교제에 대해서 다루었다.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 집단과 이성 교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왕따 문제나 도를 넘어서 신체 접촉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들의 중독을 다루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문제들을 심각하게 대두시키는 주범이 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임을 말하였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전도 전략이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임을 주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것을 크게 둘로 관계를 통한 전도와 문화를 통한 전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관계를 통한 전도는 또래 친구의 영향력에 민감한 시기에 또래 집단이나 친구를 통한 그룹을 만들어 주어서 관계를 쌓아감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고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일회성 전도 행사가 아닌 함께 공감하고 적응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전도 전략임을 말하였다. 또한, 청소년 시기가 문화에 민감한 시기이기에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CCM과 같은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여 접착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 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제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본 논문을 맺고자 한다. 첫째로,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다. 본 연구자가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전도 상황화 전략이라는 주제를 논문으로 삼은 것은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는 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의 생각을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기만 하면 커뮤니케이션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내용만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만을 훈련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는 그 복음의 내용이 전혀 공감되지 않고 오히려 강제로 개종시킨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한다.

둘째로 한국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전도 전략에 온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서 점점 줄어드는 청소년의 숫자를 회복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학교 앞 전도와 심방, 그리고 전도행사나 집회에 많은 부분 예산을 들여 집중해왔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모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커뮤니케이션과 예수가 보여준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을 볼 때 기존의 전도가 양적인 증가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예수는 청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살피시고 이해하셨다. 이제 우리의 전도 전략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 청소년들의 환경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학교 앞에 찾아가서 교회에 오라 심방 가서도 교회 오라 전도 행사에서도 교회에 오라는 일방적인 메시지는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가슴속에 외침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관계하며 지속해서 다가갈 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것이다.

셋째로 청소년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커뮤니케이션과 예수가 보여준 커뮤니케이션 그것은 모두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문화를 버리고 인간의 문화로 들어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보여주셨다. 청소년사역자들에게도 그런 열정과 사랑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한번 만나고 전도한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과 사랑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소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통한 전도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본 논문을 연구하였다. 비록, 본 연구자의 부족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인해 깊이 있는 논문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들이 한국 청소년들을 향하여 수신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복음 전도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김숙현 외
2001 *한국인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나은영
2015 *인간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한나래.
- 박기순
1998 *대인 커뮤니케이션*. 서울: 세영사.
- 박승민, 조영미, 김동민
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이해와 상담*. 서울: 학지사.
- 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 유일상
1988 *메스컴과 현대사회*. 서울: 지식산업사.
- 이종우
2005 *선교 · 문화 커뮤니케이션 (Mission · Culture Communication)*.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재욱
2009 *중고등부, 2년 안에 성장할 수 있다*. 서울: 좋은씨앗.
- 전기정, 황현택
1997 *열린시대 닫힌 커뮤니케이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전성걸
1997 *타문화 관계 전도(Communicating the Gospel Cross-Culturally)*. 서울: 한국해외선교회 출판부.
- 차배근
1978 *커뮤니케이션학 개론(상)*. 서울: 세영사.
-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인터넷 시대, 자녀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최창섭
1978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 한국기독교 청소년선교회
1997 “*십대 청소년의 의식과 삶*”에 관한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청소년선교회.
- 홍인중
2004 *청소년 위기상담, 어떻게 할까요?*.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Bright, John.
1994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 김의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Engel, James F.
1991 *당신의 메시지는 전달되고 있는가? (Getting Your Message Across)*. 정진환 역. 서울: 조이선교회.
- Farley, Ross.
1996 *21세기 청소년 사역 전략(STRATEGY FOR YOUTH LEADERS)*. 박선주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Hesselgrave, David J.
1999 *선교 커뮤니케이션론(Communicating Christ Cross-Culturally)*. 강승삼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 Hiebert, Paul G.
1996 *선교와 문화인류학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이종도, 이현모, 정홍호 공역. 서울: 조이선교회출판부.
- Josh McDowell, Bob Hostetler
2000 *청소년 상담 핸드북 (Josh McDowell's Handbook on Counseling Youth)*. 오성춘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Kraft, Charles H.
2001 *기독교 커뮤니케이션론 (Communication Theory for Christian Witness)*.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Kraft, Charles H.
2006 *기독교와 문화 (Christianity in Culture)*. 김석환,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Rowartt, Jr, Wade G.
1999 *사춘기 위기상담과 보살핌 (Pastoral Care with Adolescents in Crisis)*. 신민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Webber, Robert E.
1985 *그리스도교 커뮤니케이션 (God still speaks)*.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Williamson, G. I.
2006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강해 (The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유태화 역. 경기: 크리스찬출판사.
- Erickson, Erik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 Hendrik, Kraemer H.
1956 *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Philadelphia: Westminster.
- Kraft, Charles H.
1979 *Communicating the Gospel in God's Way*. New York: Orbis Book.
- Merrill, R. Abbey
1973 *Commnication in Pulpit and Paris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 윤영대
2011 “청소년 전도를 위한 기독교 문화적 방안 연구(The Study Christian Culture Aspect for Youths Evangelism).”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Pp 133-161.
- 황병배
2015 “St. Patrick의 켈트 전도법과 청소년 이해에 기초한 효과적인 전도전략 연구: 한국 10대 청소년 전도를 중심으로.” *한국실천신학회*. Pp 511-537.
- 기세정
2003 “청소년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 서울·경기도지역 남자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A STUDY ABOUT INTERNET TOXICATION OF YOUTH : MIDDLE AND HIGH SCHOOL MALE STUDENT WHO LIVE IN KYUNGGI-DO AND SEOUL).” 석사 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현숙
2003 “가족구성원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 연구(Perception of familial relationships).” 석사 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안신
2009 “포스트모던 시대의 젊은 세대를 위한 성육신적 커뮤니케이션 연구(INCARNATIONAL COMMUNICAL FOR A NEW GENERATION IN A POSTMODERN KOREA, WITH A FOCUS ON CCM).”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Master of Theology in Missi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 육수한
2010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중독 치료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Healing of Internet and Mobile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석사 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이성은
2007 “한국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석사 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정구
2012 “포스트모던 문화에서의 전도전략 : 공능교회 청년회를 중심으로(A STRATEGY FOR EVANGELISM IN THE POSTMODERN CULTURAL SETTING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YOUNG ADULT GROUP OF THE KONG-NEUNG CHURCH).”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왕경아

2016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Dating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석사 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조승희

2003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 조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Actual dating condition of the youth).” 석사 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약력(VITA)

김찬우는 1983년 1월 1일에 아버지 김종안과 어머니 옥정희 사이에 외동아들로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내 장주희와 2011년 2월 12일에 결혼하였고 슬하에 딸 김은서를 두었다.

김찬우는 2001년 서울장신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전공했으며 2008년에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M.Div를 마쳤다. 2013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014년에 풀러 신학교 선교대학원에 입학하여 선교학 석사과정(Th.M. in Missiology)을 전공했다.

김찬우는 ANC 온누리교회와 LA 온누리교회를 거쳐 지금은 동양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다.